

그리 만만한가...호남 비하 더 이상 방관 안된다

이번엔 서민 교수 호남 비하 시골...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선거철만 되면 극단적 언어로 영·호남 갈등 부추기는 구태 반복 포털 전라도 혐오 댓글 64%...재발 방지 위해 적극 대응 나서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호남 비하성 발언이 끊이지 않으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선거철만 되면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구태가 반복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강경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당장,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2일 자신의 유튜브 브 방송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홍보하는 영상을 올리며 흥준표 의원을 빗대 '흥어준표'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민들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흥어는 전라도와 호남인을 비하하

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호남 비하 표현은 정치인들 사이에서 지난 1970년대부터 선거철이면 터져나오면서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호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국언론학회가 지난 2018년 한국언론학보에 게재한 '포털과 지역혐오-네이버 범죄뉴스의 지역혐오댓글에 대한 내용분석'이라는 연구논문에서도 지역혐오 댓글 중 전라도 지역을 대상으로 한 혐오 댓글이 64.4%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비하 표현도 '랑개'라는 사투리성 어미가 자주 붙는 것에서 유래한 '랑갱이'를 비롯,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하한 '순상남', '좌빨', '전라디안' 등으로 다양하게 이어졌다. 더 나아가 '호뽀뽀요'('호남사람은 뽀뽀 말고 뽀아도 요직엔 앉히지 말라'는 구절을 줄인 말)라는 말도 비하성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흥어는 지난 2005년 유종필 당시 새천년민주당 대변인의 "민주당의 상징어족은 흥어" 발언 이후 대표적인 호남비하 단어로 사용되는 실정이다. '네다전'(네 다음 전라도), '알보찰'(알고보니 7시) 등도 호남을 비하하는 형태의 축약어로 사용되는 형편이다.

특히 극우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지난해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목숨을 잃고 생활터전을 빼앗긴 피해자들을 '흥어', '오뎡탕' 등으로 비

하했다가 경찰에 적발, 형사처벌받기도 했다.

도넛은 혐오 표현이 온라인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여과없이, 그대로 퍼날라지고 사용되면서 이대로 방관해서는 안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재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대표는 "윤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씨 옹호 발언과 개사과 사건에 이어 지속적으로 호남비하 발언이 나오고 있는 데 주목해야 한다"면서 "다분히 의도적이며 계산적이라고 볼 수 있다. 특정 지역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될 우려도 있다"고 비판했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정치목적 달성을 위해 호남을 비하하는 행위는 더이상 설 자리가 없다"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축을 지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동거차도 앞바다 기름 유출 진도 미역 양식 어민들 울상 "진도군 대처 늦어 피해 키위" 항변

진도 동거차도 앞바다가 외국 어선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뒤덮이면서 미역 양식을 하던 어민들이 울상을 짓고있다.

어민들은 사고 발생한 뒤 해경의 연락을 받고도 진도군의 상황 전파가 늦어지면서 피해를 키웠다고 항변하고 있다.

3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11시 10분경 진도 동거차도에서 7km 떨어진 맹골도 앞 해상에서 지난번 화물선(2500t급, 아프리카 토고선적, 선원 12명)에서 기름이 유출됐다. 해경은 곧바로 방제작에 나서는 한편, 해당 화물선이 항해 중압초 등에 부딪히면서 연료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배에서 유출된 기름이 동거차도까지 흘러가 미역 양식장을 뒤덮으면서 어민 피해도 발생했다.

어민들은 "최근에 미역 포자를 심었는데 망했다"며 망연자실해하고 있다.

한 어민은 "사고 발생 직후 기름이 새고 있다는 것을 즉각 알았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상황 전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경은 사고가 난 뒤 오후 2시경 진도군 등에 사고상황을 알렸지만 진도군이 상황을 제 때 전파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진도군의 '해양오염사고 재난 위기 관리 행동매뉴얼'에는 해경으로부터 오염사고를 접수 받은 사고개요·현장상황·피해상황·예상 피해지역 등 상황 파악을 거쳐 사고인접 지역 어장·양식장 등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대규모 해양오염사고가 아니라고 판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어민들의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건 관계인과 부정한 금전거래 전직 경찰관 징역 1년4개월 선고

사건 관계인과 부정한 금전 거래를 하거나 도박 운영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용민 판사는 3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광산경찰서 A 경위에 대해 징역 1년4개월, 벌금 5000만원, 추징금 630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남에서 근무할 당시 자신이 맡은 사건 관계인 B씨에게 무이자로 2억원을 빌려 금융 이익(뇌물)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축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됐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B씨와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운영자금을 빌려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9월 파면 조처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장애인 차량 무상 점검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자동차과 학생들이 3일 오전 운암동 캠퍼스 정비장에서 저소득 장애인 차량에 대해 오일필터, 에어컨리너, 공기압 등을 무상으로 점검해주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위드코로나에 늘어난 술자리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

전남경찰청은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으로 모임과 술자리가 늘어난 것을 감안, 3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전남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8.7%가 감소했지만 '위드 코로나' 조치로 음주운전이 늘어난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제적인 사고예방활동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 방침이다.

경찰은 유흥가, 식당가 주변 등 전남 지역별 음주운전 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야간, 심야 시간 등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범죄행위"라며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는 성숙된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사랑은커녕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3세 입양아 학대 숨지게 한 양부모 실형

양모 징역 5년·양부 3년 선고

만 3세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養父母)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3살난 아이가 뇌출혈 증상을 보여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기는 커녕, 자신을 친아들의 생일 여행에 데리고 가는 등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머리를 다쳐 움직이지도, 먹지도 못하는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가면서 미성년자에게 엄격히 사용을 금지하는 휴대폰을 먹이기가 하면, 다른 자녀들과 밥을 먹는 동안 40분

가량 혼자 차 안에 남겨놓고 방치했다.

이들이 아이 2명을 입양할 때 했던 '사랑으로 양육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은 헛말이었다. 태어난 지 1개월 만에 입양된 2명의 피해 아동 중 한 명은 부모의 사랑은 커녕,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등졌다.

재판장은 양부모의 학대 행위를 언급하면서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

대 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A씨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양부 B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5~3년 취업제한,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등이 함께 내려졌다. 검찰은 애초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양부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지난 2019년 4월 만 3세인 입양아를 폭행하고 나트륨 과다 함유된 음식을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양모인 A씨의 경우 2018년 2명의 입양아를 때리고 방치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으며 양부 B씨는 부인의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는 등 아이를 유기, 방임하는 데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숨진 아이 몸과 얼굴에 명자국과 출혈,

피부가 찢어진 흔적, 고나트륨 수치 등의 자료를 제출했다. A씨 등은 결혼해 두 명의 남자아이를 출산한 이후 두 명의 남자아이를 2015년과 2016년 각각 입양해 키우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입양한 두 아이에 대한 학대, 유기, 방임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소금 등 나트륨이 많이 든 음식을 먹인 혐의와 머리 등을 때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들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3세 아동에 대한 유기·방임을 주도해 생명을 잃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 죄가 무겁다"면서 "B씨도 공동으로 양육의무를 부담하는 친권자임에도 A씨의 학대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피해 아동을 유기·방임하는 데 동조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강력추천! 투자가치 100% 확신!

다세대빌라

(복구 운암동)

- 대 지 : 364 m²
- 건 물 : 411 m²
- 층 수 : 3층
- 세대수 : 6세대
- 평 형 : 24평형

매매가 : 495,000,000원

상담 010-3733-3933